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굿모닝! 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앙코르 MBC 스페셜 〈마지막 해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MBC 뉴스투데이 35 특집 다큐멘터리 〈100대민족문화상징 스페셜〉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0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9	50 그 여자 그 남자 스페셜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특종 연예인사이드(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45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12	00 채널 A 뉴스와 경제 20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야생의 고아들〉 4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12	10 월화드라마 〈드림하이 2〉(재)	00 MBC 뉴스 10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TV특강 행복플러스
1	50 글로벌 한식 토크 〈쇼킹〉(재)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아름다운 사람들(재)		00 통일전망대 40 지구촌 리포트(재)	30 엄마랑 아빠랑 지구한바퀴
2		00 KBS 뉴스 10 필통(재)	30 체험 삶의 현장(재)	10 앙코르 MBC 프라임 〈21세기 新직업 그린칼라를 잡아라 1부〉	3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뉴스 쇼 A타임	05 콘서트 필2(재) 55 TV동화 행복한세상(재)	00 KBS 뉴스타임 05 볼츠와 블립(재)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05 MBC 네트워크 특선 〈민족의 스승, 동안 이승휴〉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재)
4	00 채널A 다큐스페셜(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TV〉	00 TV 유치원 30 키오카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와라! 편의점 스페셜	00 매일엄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MBC플러스 특선 〈데스캠프 24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씨네포트(재)
6	00 채널A 뉴스네트워크 20 음치들의 반란 앙코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세계다큐기행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7	20 너는 내 운명 40 불멸의 국가대표(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스타 인생극장 〈선우용녀〉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딸 꽃님이〉
8	50 이영돈PD의 운명 논리로 풀다 3부(재)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55 월화 드라마 〈드림하이2〉	30 세상보기 시시각각 55 MBC 창사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55 월화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10	00 뉴스A 50 천상의 회원 곰배령(재)	00 가요무대			
11		20 KBS 뉴스라인 40 집중인터뷰 이. 사. 람.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여민락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00 뉴스&스포츠 20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재) ①:20 스토리텔링 매직쇼(재)	25 KBS 뉴스 35 KBS 특선 〈조나단의 남미여행 제2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2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영광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EBS

06:00 희망풍경
06:30 신나는 인생 5678 〈희망을 노래하다 색소폰시니어악단〉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정글북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35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8:50 우당탕탕 아이쿠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0 코코몽 2
09:25 꼬마거북 프랭클린
09:40 팅가팅가 이야기
10:00 최고의 요리비결 〈박연경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요리 - 소고기찌개 와 파래자반볶음〉
10:30 60분-부모 〈방송인 김생민 가족의 마음을 열다〉
11:30 세계의 교육현장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평생대학〈역사이야기〉
13:00 세계테마기행 〈순수의 나라 미얀마 1부 사가잉에서 만난 불심〉
13:40 신나는 인생 5678(재)
14:10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생명 40억년의 비밀 1부〉
15: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15:30 꾸러기 상상여행
15:55 딩동댕 유치원
16: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6:30 뽀롱뽀롱 뽀로로
16:45 방귀대장 뿡뿡이
16:55 코코몽2
17:1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30 캐니멀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트랜스포머 프라임
20:00 동물일기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e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신안 1부 검은바다의 유혹 홍어가 왔다〉
21:50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생명 40억년의 비밀 4부〉
22:40 EBS 기획특강
23:20 직업의 세계 일인자
24:00 지식채널e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2012 기본과 특별한 〈정승제의 고 1수학〉(상)
00:50 〃 〈이남승의 지리〉
01:40 〃 〈영문법 즐겨찾기〉
02:30 2012 내신 6감 〈이미지의 수학〉(상)
03:20 2012 포스 〈곽정원의 수학 I〉
04:10 〃 〈김규호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05:00 〃 〈이은주의 적분과 통계〉
05:50 〃 〈김경한의 기하와 백터〉
06:40 2012 탐스런 〈강봉균의 한국지리〉
07:30 〃 〈한종철의 생병과학 I〉
08:20 2012 기본과 특별한(재) 〈정승제의 고1수학〉(상)
09:10 〃 〈이남승의 지리〉
10:00 2012수능특강 〈강봉균의 한국지리〉
10:50 〃 〈송점석의 생물II〉
11:40 〃 〈송원희의 지구과학II〉
12: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13:00 2012수능특강 〈한도균의 법과사회〉
14:00 〃 〈박봄의 정치〉
15:00 〃 〈민병권의 세계지리〉
16:00 〃 〈정진선의 물리 I〉
17:00 〃 〈기상호의 화학 I〉
18:00 〃 〈정현경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19:00 〃 〈이채형의 기하와 백터〉
20:00 〃 〈윤혜정의 언어〉
21:00 〃 〈외국어 영역〉
22:00 〃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23:00 EBS 초대석

EBS플러스2

07:00 2012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07:30 EBSe 생활영어
08:00 교원임용고사 대비 강좌
08:30 미래직업 뜨는 직업
09:10 EBS TV 중1 〈문학〉
09:50 〃 〈비문학〉
10:30 EBS TV 중2 〈문학〉
11:10 〃 〈비문학〉
11:50 EBS TV 중3 〈문학〉
12:30 〃 〈비문학〉
13:10 이야기 한국사
13:50 이야기 수학사
14:30 EBS 클립뱅크
14:50 한자지존 도로롱
15:10 생물이 생생!
15:20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15:50 EBS 초등 내공 냠냠 〈국어 4-1〉
16:20 〃 〈국어 5-1〉
16:50 〃 〈국어 6-1〉
17:20 TV로 보는 원작동화
18:00 EBS TV 중1 〈비문학〉(재)
18:40 〃 〈문학〉(재)
19:20 EBS TV 중2 〈문학〉(재)
20:00 〃 〈비문학〉(재)
20:40 중학 학습 비법 특강
21:20 EBS TV 중3 〈문학〉(재)
22:00 〃 〈비문학〉(재)
22:40 이야기 한국사(재)
23:20 이야기 수학사(재)
24:00 EBSe 생활영어(재)

"고종에 대한 고정관념 깨겠다"

박희순, 내달 개봉작 '가비'서 비운의 황제 열연

"옷이 주는 위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백색 곤룡포를 입으면 왕이 느꼈던 외로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옷만 입으면 기분이 가라앉았죠. 사복을 입으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영화 '가비'에서 비운의 황제 고종 역을 맡은 배우 박희순〈사진〉의 말이다.

'가비'는 일본 제국의 음모에 빠져 고종황제의 암살에 휘말리게 된 바리스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가비는 영어에 익숙지 않았던 당시, 조선인들이 '커피'를 우리식으로 표기했던 말이다.

박희순은 15일 서울 강남의 한 극장에서 가진 이 영화의 제작보고회에서 "고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종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지점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하게 됐어요. 고종은 일본에 의해 왜곡되거나 폄하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영화 '체인지'(1997) 이후 15년 만에 영화에 도전장을 내민 김소연은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 따냐 역을 맡았다.

김소연은 "그동안 굉장히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다"며 "틈틈이 영화 진출을 노렸다"고 말했다.

'가비'를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커피와 역사가 조합된 점도 매력적이었고, '따냐'라는 인물이 한 영화에서 보여줄 게 많다는 점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접속'(1997), '텔 미 썸딩'(1999), '황진이'(2007)를 연출한 베테랑 장윤현 감독이 '가비'의 메가폰을 들었다.

장 감독은 "'황진이'가 망한 후 사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사극의 묘한 매력에 이끌려 다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는 김탁환의 소설 '노서아 가비'를 원작으로 삼았다. 다음 달 개봉. /연합뉴스

'범죄와의 전쟁' 관객 300만 돌파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가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최민식·하정우 주연의 이 영화는 토요일인 전날 21만4천 명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319만9천655명을 기록했다.

지난 2일 개봉한 이후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 최단 기간에 300만 명 고지를 밟았다. 앞서 '댄싱퀸'과 '부러진 화살'이 300만 관객을 넘어섰으나, 25일 만에 도달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18일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이번주 개봉한 '하울링'(18일 22만2천 명 동원)에 1위를 내주긴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것이어서 당분간 계속 흥행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이 같은 흥행세가 유지될 경우 4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1월 29일 辛亥)

子 36년생 오해하는 이가 감정을 품을 수 있다. 48년생 노력한다면 꼭 이루리라. 60년생 만나고 싶은 이를 찾다가 시간 낭비 할 수 있다. 72년생 인간 관계를 중시해야 처세에 지장이 없느니라. 84년생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 주자. 행운의 숫자 : 12,54

丑 37년생 과시하기 보다 부족한 것을 채우자. 49년생 불편한 자리라고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61년생 중후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라. 73년생 용기를 북돋워 줘야한다. 85년생 배짱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싱겁다는 소리를 듣는다. 행운의 숫자 : 37,80

寅 38년생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로다. 50년생 자신의 재주를 활용치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다. 62년생 일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74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행운의 숫자 : 24,13

卯 39년생 배우자의 권고대로 행하면 꼭 행운이 따르리라. 51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도다. 63년생 가정의 분위를 맑고 활기차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 75년생 자기의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법이니라. 행운의 숫자 : 65,23

辰 40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느니라. 52년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64년생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곤 하는 이는 멀리 하는 편이 낫다. 76년생 정확히 모른다면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05,66

巳 41년생 발전적인 이별은 감내 하라. 53년생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65년생 좋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 상대 역시 느낄 것이다. 77년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9,38

午 42년생 스스로 해결해보도록 하자. 54년생 작은 이익을 꾀하려다가 명예까지 실추 될 수 있다. 66년생 팽팽한 긴장감을 다소 이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78년생 상식과 식견을 기초한 판단이라면 무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96,94

未 43년생 착실하게 전진하면 꼭 이루어지리라. 55년생 튼튼하다고 믿었던 방비책에도 허점을 찌르고 들어 올 수 있다. 67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 가리라. 79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 올 수니 맞이할 채비를 해 두자. 행운의 숫자 : 97,64

申 44년생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자가 있겠다. 56년생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드디어 해 묵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80년생 본능에 빠지다 보면 제 할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5,52

酉 45년생 추진하더라도 성공률은 반반이다. 57년생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보아라. 69년생 참고 있다 보면 곧 회복세로 돌아서리라. 81년생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니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3,37

戌 46년생 품앗이해야 할 몫은 꼭 갚아야 하는 법이다. 58년생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70년생 조용히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자. 82년생 성사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조바심을 버려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06

亥 47년생 인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59년생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 줘버려라. 71년생 즐기면서도 생산적이라면 금상첨화겠다. 83년생 완벽한 결과만을 찾으려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1,1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I ache all over

저는 온몸이 쑤셔요

A : Hi, Neully-cam. How are you?
B : Fine, Thanks. and you?
A : Well, I ache all over.
B : I'm sorry to hear that. I hope you feel better soon.

A : 이봐요 널리캠 씨, 안녕하세요?
B : 좋아요, 고마워요. 당신은요?
A : 음, 저는 온몸이 쑤셔요.
B : 저런. 빨리 회복되시기를 빕니다.

* ache : 아프다, 쑤시다
* all over = 도처에, 온몸에
* feel pain = 통증을 느끼다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한자이야기

投鼠忌器(투서기기)

던질 투, 쥐 서, 꺼릴 기, 그릇 기

투서기기(投鼠忌器)는 쥐를 잡고 싶으나 그릇을 깰까 꺼린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벌하고 싶어도 도리어 다른 손해를 볼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서한(西漢)의 경제(景帝)에게 정치가 가의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세간에서 말하는 '쥐를 때려잡고 싶지만, 그릇을 깰까 봐 겁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쥐 한 마리가 조용한 밤중에 구멍에서 나와 무엇을 먹고 있다가 주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쥐는 쌀 항아리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주인은 그 쥐를 때려잡고 싶었지만, 항아리를 깨뜨리게 될까 무서워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폐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비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상 황제의 곁에 있으므로, 폐하께 아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이 말에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출전] 〈한서(漢書)〉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쫑구워

路盲 lùmáng

'길치'를 중국어로?

요즘은 차에 '그녀'가 없으면 낯선 길에 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도 천성 '길치'인지라 '그녀'에게 의존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길치'의 표현을 중국에서는 盲人(맹인)에 쓰이는 '소경 맹(盲)'자를 '길 로(路)'에 붙여 路盲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처음의 출발은 글을 모른다는 의미의 '文盲(문맹)'인 듯한데, 지금은 盲자를 거의 모든 단어에 붙여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부분에 어두우면 歷史盲 lìshǐmáng이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보면요.

우리도 어느 방면에 어두운 걸 문맹, 컴맹처럼 '맹'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음치, 길치처럼 치(癡·癡)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楽(たの)しみにしているわ。

기대하고 있을게요

A : お前(まえ)、彼氏(かれし)居(い)るの。
B : いや、居(い)ないわよ。
A : 一人紹介(ひとりしょうかい)して上(あ)げる。
B : 本当(ほんとう)、楽(たの)しみにしているわ。

A : 자네, 애인 있어.
B : 아니, 없는데.
A : 한사람 소개해 줄까.
B : 정말, 기대하고 있을게.

[문법정리]
彼氏(かれし) 남자애인 彼女(かのじょ) 여자애인
楽(たの)しみにしている 기대하고 있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